

GYEONGNAM INVESTMENT
BUSINESS AGENCY



경남
산업·경제이슈



최근 정부정책과 민선 9기 경제·산업 정책 방향

경남 산업·경제이슈 CONTENTS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제분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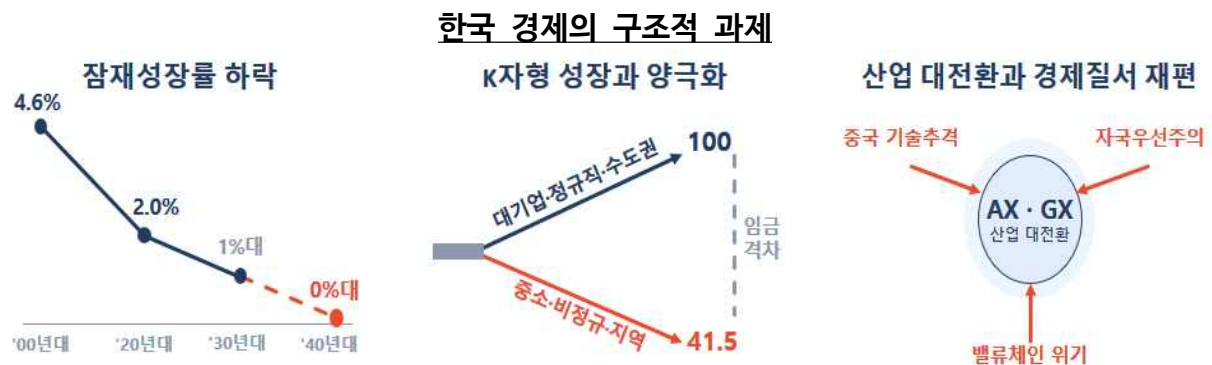
1. 정부의 경제·산업 인식과 대응 전략	1
2. 정부의 경남지역 투자 방향	5
3. 민선 9기 도정과제	8
4. 민선 9기 경제·산업 정책 방향성	12

01 정부의 경제·산업 인식과 대응 전략¹⁾

- '26년 상반기,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의 정책 방향이 동시에 제시
 - 정부는 '26.1.9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이어, '26.6.29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제조AI 2030 전략」을 발표하고 '26.6.30~7.3 권역별 국민보고회를 통해 투자계획을 공개
 - 경상남도는 '26.7.7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제조AI 전환·SMR·우주항공 중심의 도정과제(안)를 제시
- 중앙정부 정책과 경남 도정과제의 접점을 정리할 필요
 - 중앙정부 정책과 경남 도정과제는 제조AI 전환, 피지컬 AI, SMR, 우주항공 등에서 방향이 상당 부분 일치하나, 영남권 투자 규모(312조원)와 경남의 위치를 감안하면 기회 요인과 과제가 상존
 - 이에 중앙정부의 경제·산업 인식(1장)과 경남지역 투자 방향(2장)을 정리하고, 이에 대응하는 민선 9기 도정과제(3장)와 경제·산업 정책 방향성(4장)을 검토

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수립 배경

- '26년 경기 회복이 예상되나 구조적 과제가 상존한다고 진단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6년 경제성장전략」

-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하락
 - 인구 감소·투자 위축·생산성 정체가 맞물리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 생산연령인구는 '20년대 들어 감소세('30년대 연평균 약 50만명 감소 전망)로 전환되었고, 투자 증가율 역시 '00년대 4.6%에서 '20년대 1%대로 둔화
 -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30년대 1% 내외, '40년대에는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

1) 본문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보고자료」, 「제조 AI 2030 전략」('26.6.29)을 발췌·요약한 것임

■ 'K자형 성장'과 양극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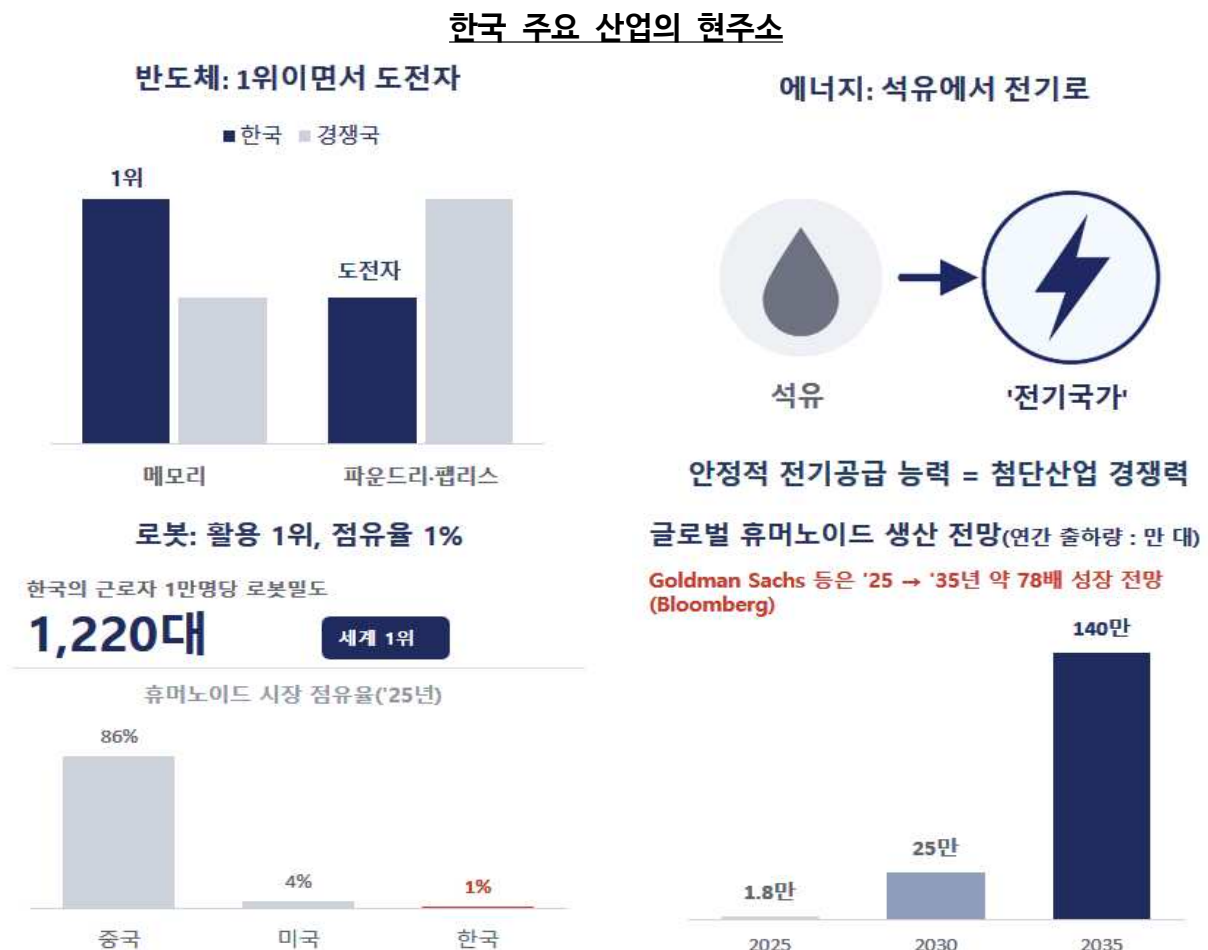
- 대기업·IT 편중 성장 속에서 대·중소기업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역 간 격차가 겹치며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른바 'K자형 성장' 중
 - 시간당 임금은 대기업·정규직(100) 대비 중소기업·비정규직이 41.5 수준에 그치고, 순자산 지니계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수도권 집중의 악순환(30대 기업 본사의 약 95.5%가 수도권 소재 등)은 출생률 하락·내수 기반 약화로 번져 성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

■ 산업 대전환과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이라는 대외 도전

- 대외적으로 AI 대전환(AI)·녹색 대전환(GX) 등 산업 구조의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국면
- 여기에 중국 기술추격, 자국우선주의 확산, 밸류체인 위기 등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대한 대응도 시급한 과제로 평가

나. 'AI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3대 신성장동력 설정

■ 주요 산업의 현주소 진단



자료: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보고자료」, Bloomberg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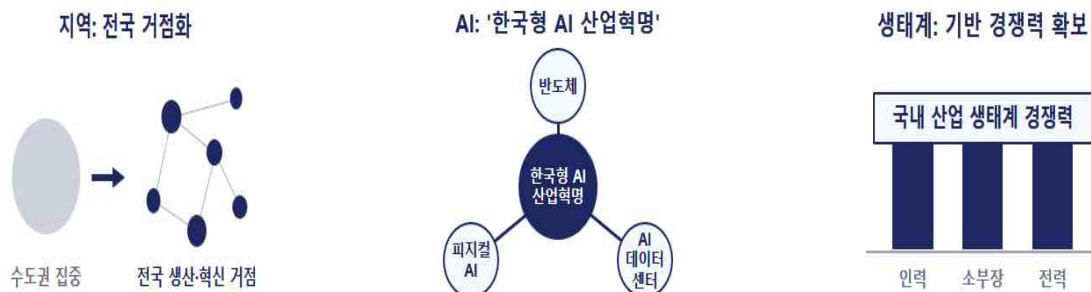
-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이나 후발주자의 강력한 추격에 직면, 파운드리(위탁생산)·팹리스(설계) 분야에서 한국은 여전히 추격자 입장
- **(에너지)**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을 '안정적 전기공급'으로 보고, 석유에서 전기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전기국가'로의 이행을 미래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척도로 규정
- **(로봇·피지컬 AI)** 로봇을 '잘 쓰는' 국가이나 '잘 만드는' 역량은 부족한 현실, 글로벌 로봇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피지컬 AI 도입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가능성 높음
- **(제조업)** 인구 감소와 글로벌 경쟁 격화로 제조업 위기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세계적 주력산업과 전산업에 걸친 대·중소기업 가치사슬, 수십 년간 축적된 숙련공의 현장 노하우(제조 암묵지)는 우리만의 강점으로 평가

■ AI 대전환에 따른 산업 지형 변화 평가

- AI 대전환으로 반도체가 모든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전력·데이터센터 등 기반 수요가 빠르게 급증(메모리 시장 '25년 0.2조불→'30년 0.8조불 전망)
- 특히 제조업 AI 전환(M.AX)에서 중국·미국과의 격차를 '속도 전쟁'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전환의 절박함을 역설
-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초과세수로 기업·정부의 투자 여력이 확충되고 AI 생태계 핵심요소(전력·칩·인프라·모델·응용) 경쟁력을 두루 갖춘 현 시점을 저성장을 끊고 대도약을 이룰 마지막 기회로 인식

■ 한국 경제 재도약의 3대 키워드로 지역·AI·생태계 선정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3대 키워드



자료: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보고자료」

■ 3대 신성장동력으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제시

- '두뇌'인 반도체(핵심요소), '지능을 갖춘 신체'인 피지컬 AI(확산), '생각의 창고'인 AI 데이터센터(기반)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한국형 AI 산업혁명'을 새 성장동력으로 설정
- 이를 제조공정 전반에 접목하는 제조업 AI 전환(M.AX, Manufacturing AX)을 포함해 공공·국방·농업 등 모든 분야와 일상으로 적용을 가속화한다는 방침

■ 「제조AI 2030 전략」 수립으로 제조업 AI 전환을 본격화

- 「대한민국 AI 행동계획」('26.2)의 후속으로 범부처 합동 「제조AI 2030 전략」을 '26.6.29 발표
- 2030년까지 민·관 20조원 투자와 제조업 부가가치 100조원 이상 창출을 목표로 제시

다. 정책 대응 방향

■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4대 정책방향

-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잠재성장을 반등과 양극화 극복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 4대 정책방향 아래 15대 과제·50대 세부과제로 구성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4대 정책방향

1 거시경제 적극 관리

+8.1% **66 → 70조원** **633.8조원**

'26년 총지출 증가율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공급

총수요 관리와 함께 물가 안정, 외환·부동산·금융시장 리스크를 선제 관리

2 잠재성장을 반등

K-반도체 세계 2강

방산 4대 강국

바이오

석유화학·철강

국가전략산업 육성, AX-GX 추진 및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전개

3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지방주도성장

대·중소 상생

소상공인·청년 지원

→ '모두의 성장' 도모

4 대도약 기반 강화

규제개혁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

재정·세제 구조혁신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제도·재정 기반을 정비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6년 경제성장전략」

■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제도적 뒷받침

- (반도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가 일정 기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승인되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해 투자 속도를 제고
- 팹리스·파운드리 전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정원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국민성장펀드·국부펀드 등 정책자금 연계를 병행
- (방산·바이오)** 방산은 NATO·EU 조달시장 진출 지원과 탄약·핵심부품 국산화로 세계 4대 강국을 지향하고, 바이오는 신약 인허가 심사기간을 평균 420일에서 240일로 단축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
- (세제·R&D)**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전력(에너지)·반도체·LNG 화물창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그래핀·특수탄소강을 추가해 세제·R&D 지원 범위를 확대

■ AI 대전환(AX)의 전방위 추진

-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위한 민·관 합작 특수목적회사를 신속히 설립해 연내 착공하고, 정부가 확보한 첨단 GPU 1만장을 산·학·연과 국가 AI프로젝트에 배분
-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7대 선도분야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확산을 추진하며, 고용·납세·신약심사 등 수요가 높은 서비스부터 공공 AX를 단계적으로 확대

■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 수도권 1극체제를 '5극3특' 체제로 바꾸고 전국을 생산·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지방주도성장이 균형성장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선언
- 권역별로 특화 분야를 나누어 지방 AX를 가속화하며, 동남권은 방산·조선·기계 분야의 피지컬 AI 구현을 담당
- 전략산업 중심의 지방대학 혁신, 거점국립대 육성, 정주환경 개선 등으로 지방 성장잠재력을 제고

02 정부의 경남지역 투자 방향2)

가.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개요

- 3대 메가프로젝트의 권역별 후속 행사로 경남 진주에서 개최
 - 정부는 '26.7.3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
 - '26.6.29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 행사로, 서남권('26.6.30, 광주)·충청권('26.7.2, 아산)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권역별 보고회
 - 중앙정부(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지방정부(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산업계, 지역 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
- 영남권에 대한 정부의 진단
 - 정부는 영남권을 구미산단 등 대한민국 산업화를 가장 먼저 시작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반도체·전자·우주 등 제조기반 위에 피지컬 AI가 융합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차세대 반도체 및 소재·부품·장비 생태계가 이미 자리 잡았다는 점을 영남권의 강점으로 제시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승자독식의 초경쟁 세계질서 속에서 진짜 승부처는 과포화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음을 강조하고, '5극3특 성장엔진'을 빠른 시일내에 발표한다는 계획

나. 주요 기업의 영남권 투자계획

- 6개 그룹이 반도체·전자·우주항공·피지컬 AI·SMR 등에 총 312조원 투자

6개 그룹의 영남권 투자계획

SK		약 140조원	2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해외 사업자 제휴 및 자본 유치 등 포함)
삼성		약 60조원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라인, 차세대 배터리 양산 라인 구축
한화		약 55조원	위성·발사체·우주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
현대차		약 42조원	AI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미래 핵심부품 제조 클러스터, 제조 AI, 미래 항공·우주
LG		약 9.4조원	프리미엄 가전 연구개발, 반도체 기반 캐파 증설, 디스플레이 신모델 투자
두산		약 5.1조원	소형모듈원전(SMR), 대형원전, 가스·수소터빈

자료: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보도참고자료('26.7.3.)

2) 본문 내용은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26.7.3) 보도참고자료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보고자료」('26.6.29) 등을 발췌·요약한 것임

■ 권역별 투자 규모 비교 : 영남권의 상대적 위치

권역별 기업 투자 규모 비교



서남권 약 896조원

메모리 팹 4기(800조원) 등 반도체 생산 투자가 대부분

충청권 약 392조원

HBM 패키징 팹(81조원) 등 반도체 후공정 투자가 중심

영남권 약 312조원

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우주항공·에너지 등으로 분산

자료: 관계부처 합동; 권역별 국민보고회 보도참고자료('26.6.30.~7.3.)

다.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의 주요 내용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요약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소부장 혁신거점

수도권(생산)·충청권(패키징)·영남권(차세대·소부장) 특화 분담

부산 전력반도체 클러스터, 구미 소부장·방산 테스트베드 구축

데이터센터 서버용 고성능·저전력 반도체 개발 지원

경남 | 특화거점 지정에서 명시적 역할 미부여

AI 데이터센터

영남권 2GW, 울산 1GW급

울산에 전국 최초 1GW급 메가 데이터센터 건설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로 전력 적기 공급

지역별 전기요금제,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 도입 추진

경남 | 벨트의 한 축으로 창원 포함

피지컬 AI

'첨단로봇 초혁신 벨트' 육성

구미·포항·대구·창원 벨트로 로봇 산업 집중 육성

5년 내 로봇 글로벌 3강·피지컬 AI 1강 목표

구미 휴머노이드 양산 라인, 3대 핵심 로봇부품 전용 R&D

경남 | 벨트의 한 축으로 창원 포함

에너지

세계 최초 SMR 전용 생산공장 신축

가스터빈·핵심부품 집중 투자로 그린에너지 대전환 주도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

경남 | 두산 투자(약 5.1조원)와 직결, 두산에너지빌리티 소재 참여가 실질적 수혜

우주항공

사천 우주항공허브·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정부 역할을 우주개발 직접 수행에서 지원자로 전환(뉴스페이스)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선 조기 발사

경남 | 우주항공청 소재지 사천이 허브 조성의 중심지

자료: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보도참고자료('26.7.3.)

■ 반도체 :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 혁신거점

- 정부는 반도체 지역별 특화 생산망을 수도권(생산거점)·충청권(패키징 거점)·영남권(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 혁신거점)으로 분담하는 구도를 제시
 - 부산에 전력반도체 클러스터, 구미에 소부장·방산 특화형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
 - 울산 등 GW급 메가 AI 데이터센터를 뒷받침할 데이터센터 서버용 고성능·저전력 반도체 개발을 집중 지원
- 다만, 경남은 반도체 특화거점 지정에서 부산·구미에 비해 명시적 역할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

■ AI 데이터센터 : 영남권 2GW, 울산에 전국 최초 1GW급

- 영남권에 2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며, 특히 울산에는 전국 최초로 1GW 규모의 메가 데이터센터가 건설될 예정
 -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 등을 통해 전력의 적기 공급을 지원
 -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통해 비수도권 입지 첨단산업에 경쟁력 있는 요금을 적용하고,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 도입도 추진

■ 피지컬 AI : 창원을 포함한 '첨단로봇 초혁신 벨트'

- 구미-포항-대구-창원을 잇는 '첨단로봇 초혁신 벨트'를 중심으로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
 - 5년 내 로봇 글로벌 3강, 피지컬 AI 1강을 목표로 영남권 제조업의 피지컬 AI 대전환을 추진
 - 구미에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라인을 구축하고, 액추에이터·센서 등 3대 핵심 로봇부품 전용 R&D를 신설
 - 조선·자동차 등 피지컬 AI 기반 생산라인 투자도 확대할 계획
-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지방 AX 과제에서도 동남권은 방산·조선·기계 분야의 피지컬 AI 구현을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

■ 에너지 : SMR 전용 생산공장과 가스터빈·해상풍력

- 그린에너지 대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SMR 전용 생산공장을 신축하고, 가스터빈 및 해상풍력에 집중 투자
 - 두산의 SMR·대형원전·가스수소터빈 투자(약 5.1조원)와 직접 연결되는 과제로, 두산에너지빌리티 본사가 소재한 창원이 실질적 수혜 지역
-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해 SMR 관련 생산세를 감면하고, 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검토

■ 우주항공 : 사천 우주항공허브와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 정부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산업을 기업과 지역이 선도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제시
 - 뉴스페이스(New Space) 전환기를 맞아 정부의 역할을 우주개발의 직접 수행 주체에서 안전망 조성 및 전환 촉진의 지원자로 전환
 -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선 조기 발사 등을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
- 주요 기업과 인프라가 집적한 남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
 -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허브'를 조성하고, 이를 벨트 내 산업분야별 지역거점을 연결하는 중심지로 삼아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완성할 계획
 - 독자적 완제기 생산 역량·수출 경쟁력·우주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기업들이 글로벌 앵커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공공수요 창출, R&D, 정책금융 등을 전방위 지원

라. 경남 관련 주요 과제

■ (창원) SMR 전용 생산공장과 첨단로봇 초혁신 벨트

- 세계 최초 SMR 전용 생산공장 신축, 가스터빈·해상풍력 집중 투자는 두산에너지빌리티 본사가 소재한 창원의 원전·발전설비 클러스터와 직결
- 구미-포항-대구-창원을 잇는 '첨단로봇 초혁신 벨트'에 창원이 포함되어, 기계·방산 기반의 제조 AI·로봇 전환이 정책 대상에 진입

■ (사천) 우주항공허브와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허브'를 조성하고, 이를 벨트 내 산업분야별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중심지로 설정
- 완제기 생산 역량·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글로벌 앵커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수요 창출·R&D·정책금융을 전방위 지원

■ (도 전역) 활용 가능한 제도적 수단

- 금융 투자를 밀착 지원할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 영남권 첨단 국가산업단지 신규 조성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영남권 메가특구 지정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 등 세제 지원

03 민선 9기 도정과제³⁾

가. 경남 산업경제 현황

■ 경제 규모와 인구의 비수도권 1위 복귀

- GRDP는 151.2조원으로 '21년 대비 33조원 증가하였고, 총인구는 332.1만명('25.12월말)으로 각각 비수도권 1위(전국 3위)를 회복
- 무역수지는 '22.10월 이후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전국 4위 수준으로 상승
- 투자유치 10조원·국비 11조원 시대를 열었고, 같은 기간 채무는 3천억원 감소

■ 지역 주도 발전 기반의 확충

- 우주항공청 개청, 기업혁신파크·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지정 등으로 서부권·남부권 발전 기반 마련
- 북극항로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진해신항 배후단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 5극3특 균형성장에 대응하는 '경남형 신 지역발전체계'를 실행하고, 부울경 경제동맹 협력 강화

3) 본문 내용은 경상남도 「민선9기 도정과제(안)」('26.7.7)을 발췌·요약한 것임

■ 민생경제 회복 지연과 구조적 과제

- 러·우전쟁, 관세 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민생경제의 회복이 더딘 상황
- 서비스 산업 성장 둔화와 자영업자 소득의 더딘 회복이 겹치며 체감경기 개선이 지연
- 청년인구 유출 규모는 줄고 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인구감소지역이 11개 시군에 이르는 등 인구 구조의 과제가 상존

나. 경남 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

■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대도약

- 피지컬 AI 개척과 K-주력산업의 글로벌 혁신으로 국가 성장을 선도한다는 방향을 제시
- 우주항공·SMR·해양물류(북극항로)·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 민생경제 활성화와 혁신 창업·투자를 통한 동반 성장을 병행

■ 경남형 신 지역발전체계로 균형성장 추진

- 경남 중심의 초광역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촘촘한 교통망으로 연결되는 균형성장축을 완성
- 지역·권역별 균형성장과 지역혁신을 통해 경남형 지역발전체계를 완성

다. 도정과제 추진체계와 중점과제

- 도정과제는 4대 도정목표 아래 24개 정책과제·54개 이행과제로 구성되며, 산업·경제 분야는 목표 1(탄탄한 산업 활기찬 민생)의 6개 정책과제에 집중



자료: 경상남도; 「민선9기 도정과제(안)」(‘26.7.7)로 재구성

■ 4대 중점과제 선정

- (중점과제 1) 피지컬 AI로 여는 제조AI 전환·SMR 글로벌 위상 확립
- (중점과제 2)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청년연금 등 복지 표준 제시
- (중점과제 3) 북극항로 연계 글로벌 첨단 물류도시 조성
- (중점과제 4)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지역혁신 연계 강화
- 이 중 중점과제 1이 목표 1의 제조AI·SMR 과제와 직접 연결되어, 산업·경제 분야의 최우선 순위

라. 산업·경제 분야 주요 과제

■ 제조AI 전환(G-M.AX) 추진

- (피지컬 AI 혁신기술 개발) '26~'30년 5년간 물리정보신경망(PINN) 기반 인간-AI 협업형 거대행동 모델(LAM) 원천기술을 개발·실증
 - 서울대·경남대·한국전자통신연구원·경남테크노파크·도내 기업 등이 참여하며, 물리지능행동모델 융합데이터 수집·활용 체계를 구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업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26년 하반기)을 거쳐 착수할 계획
- (제조 AI 혁신밸리 조성) 창원국가산단 등 도내 일원에 AI 솔루션 기업 육성, 실증·사업화 전주기 지원, 전환 인력 육성 등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
 - 전국 최상위권의 스마트공장과 M.AX 수요기업을 기반으로 AI 전환을 주도할 앵커기업을 육성
 - '27년 국비 반영 건의('26년 하반기)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
- (제조 특화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도권에 집중된 AI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도내 제조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AI 데이터센터를 구축
 - 고성능 연산자원이 부족한 AI 기업의 모델 개발·데이터 분석 지원, 클라우드·테스트베드 제공, 실증 시나리오팩(AI 비전검사, 공정시간 예측, 예지보전 등)을 지원

■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K-Space) 도약

-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사천시 용현면 일원 710만㎡ 규모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추진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토부 추진단 설치, 예타 면제, 특별회계 설치 등)이 '25.12월 발의되어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
 - 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발굴('26년 하반기),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27년 상반기)을 순차 추진
- (미래항공·위성 전주기 산업 허브) 우주항공 산·학·연 클러스터와 정주환경을 결합한 산업 거점도시 조성을 목표로 설정
 -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컨벤션센터(연면적 42,000㎡, 총사업비 1,915억원) 건립을 통해 마이스 산업을 육성('27~'35)
 -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진주·사천, 경상국립대 등 31개 기관)를 통해 위성 R·D·실증 기반을 마련
 - 사천 항공MRO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동북아 항공정비 거점 육성을 추진
-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하동지구 정상화를 추진

■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SMR 전주기 산업거점)** 창원국가산단 확장구역에 개발·제조·검사를 아우르는 'SMR 원스톱 제조·검사 거점'을 구축
 -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26~'31, 2,651억원)로 제작기간을 단축하는 공정기술과 장비 국산화를 추진
 -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24~'28, 323억원, 경남테크노파크 주관)로 제조공정을 고도화
 -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26~'29, 275억원, 기계연구원 주관, 두산에너지빌리티 수요기업)로 품질·신뢰성을 확보
- **(K-조선 제조혁신 생태계)**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 센터 구축('23~'27, 250억원)에 이어 조선해양 피지컬AI 실증 테스트필드를 연계해 조선산업 M.AX 확산을 추진
 - 거제시 장목면 소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내에 피지컬AI 선체가공 테스트필드 및 데이터공유 플랫폼을 구축('27.12~)
- **(함정 MRO 클러스터)** 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국비 공모 선정에 따라 거제·창원·통영·고성 일원에 함정 MRO 클러스터를 조성('26~'30)
 - 산업통상부 495억원('26.3월), 방위사업청 490억원('26.5월) 규모로, MRO 종합지원센터·수주정보망 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수출지원을 추진
- **(바이오메디컬·승강기)** 김해·양산의 의료기기 개발·임상 자원을 연계한 바이오메디컬 혁신벨트를 구축하고, 거창에 승강기산업 진흥기관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

■ 투자·창업 선순환 기업성장 생태계 구축

- **(기회발전특구)** 창녕 대합·영남일반산단에 미래모빌리티 소재 지구(61.7만㎡, 투자 4,485억원), 하동 대송산단에 이차전지 모빌리티 소재 특구(86.8만㎡, 투자 8,482억원)를 조성하고, 밀양 나노 국가산단 등 특화산단 기업 유치를 병행
- **(창업 투자펀드)** 우주항공 특화펀드·미래성장 모펀드 등 9개 신규 펀드(3,060억원)를 더해 총 39개 1조 748억원 규모의 창업 투자펀드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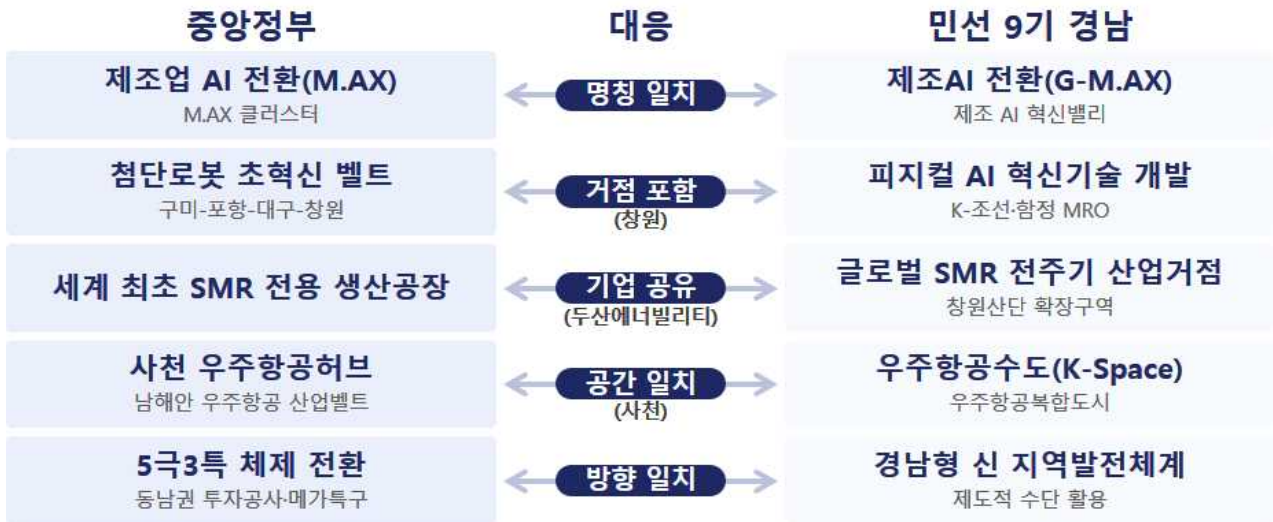
■ 산업수요 기반 일자리 창출

- 지역 주력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춘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으로, 취업이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강화
- **(청년)** 원전·방산·AI 등 도내 주력산업 기업과 연계한 채용 트랙을 신설
- **(중장년)** 생애재설계·사회재도약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동부권(양산)·서부권으로 순차 확대

04 민선 9기 경제·산업 정책 방향성

가. 중앙정부 정책과 도정과제의 정합성

중앙정부와 민선 9기 경남 정책의 대응관계



자료: 경상남도; 「민선9기 도정과제(안)」('26.7.7)로 재구성

- 정부 정책과 경남 도정과제는 5대 분야에서 상당부분 정합성이 높은편
 - **(제조AI)** 정부 제조업 AI 전환(M.AX)을 지역 단위로 구체화 한 것이 경남 G-M.AX
 - **(피지컬 AI)** 정부 첨단로봇 초혁신 벨트(구미-포항-대구-창원)에 창원이 거점으로 포함
 - **(SMR·에너지)** 두산에너지빌리티(창원)가 정부 투자와 경남 SMR 거점에 공통 참여하는 기업 접점
 - **(우주항공)** 사천이라는 동일 공간을 정부 우주항공허브와 경남 K-Space가 함께 대상화
 - **(지역발전체계)** 5극3특과 경남형 신 지역발전체계가 균형성장 방향에서 일치하며, 정부 정책수단(동남권 투자공사·메가특구)이 경남의 활용 대상

나. 실행을 위한 향후 과제

- 영남권 내 경남의 투자 배분과 위치
 - 영남권 기업 투자 발표액(312조원)은 서남권(896조원)·충청권(392조원)에 비해 작고, 그 중 상당 부분이 울산(AI 데이터센터)·구미(로봇·소부장)·부산(전력반도체)에 배분
 - 경남에 명시적으로 연결된 대규모 과제는 SMR 전용공장이 중심이며, 반도체 특화거점 지정에서는 부산·구미에 비해 경남의 역할 강조 필요
- 국비 확보와 법령 제정 과제
 - 다수 도정과제가 국비 반영을 전제로 하여, 제조 AI 혁신밸리('27년 국비 반영 건의)·제조 특화 AI 데이터센터(공모 대응) 등은 예산 확보가 관건
 -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남해안권발전 특별법 등은 국회 통과가 선행되어야 함

■ 정부 공모·후속 절차 대응

- 메가특구 지정, 첨단 국가산단 입지 선정,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은 후속 의사결정을 거쳐 확정되는 사안으로, 정부 사안에 따른 단계적 대응방안 마련
-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영남권 발전비전은 대부분 비전·계획 단계로, 구체적 입지·규모·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적극적인 후속절차 대응이 중요

■ 지속적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민선 9기 경제정책 방향 부합성 제고 필요

- 202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2026.7.14) 등 지속적인 중앙정부 경제정책 발표에 따라 민선 9기 경제산업 정책과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참고자료

Bloomberg Database

경상남도, "민선9기 도정과제(안)" (2026.07.07.)

관계부처 합동, "2026년 경제성장전략" (2026.01.09.)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제조업 대전환의 길: 제조AI 2030 전략" (2026.06.29.)

산업통상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보고자료" (2026.06.29.)

산업통상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개최" (2026.06.29.)

산업통상부, "인공지능이 이끄는 제조업의 대전환, 2030년 청사진 나왔다" (2026.06.29.)

산업통상부,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심장, 서남권에서 시작한다" (2026.06.30.)

산업통상부, "글로벌 첨단산업 중심, 충청이 초격차를 선도합니다" (2026.07.02.)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끈 영남, 첨단산업의 미래를 열다" (2026.07.03.)

OECD, "Economic Outlook" (2026.02)

발행일	2026년 7월 30일
발행인	김인수
편집인	곽소희
집필인	윤종철·박예은
발행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51404)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 본 간행물을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 「경남 산업·경제동향」의 내용 및 편집에 관한 의견과 제안이 있으시면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 경제분석센터 (T.055-230-2805, 281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간행물은 메일링 서비스(<https://www.giba.or.kr>) 신청을 통해서 정기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